



미주한인 CBMC 월간 뉴스레터 NEWSLETTER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당신을
'일터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지혜 탐방 새크라멘토



전도서 5:19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K-TOWN 지회



남가주 지회



북가주 트라이벨리 CBMC



CBMC, 제2회 장학금 모금 골프대회

**차세대 청소년 리더 양성,
장학기금마련에 전력
4월3일, 로스 코요테스에서**



미주한인기독실업인회 (총회장 강승태, 이하 CBMC)가 차세대 청소년 리더 양

성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4월 3일(월) 오전 11시 로스 코요테스 골프 코스에서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총회장 강승태, 공동 대회장 황선철(사진), 명예 대회장 노상일, 차민영, 부 대회장 이봉우, 계용식, 오윤호, 총괄 준비위원장 안신기, 공동 준비위원장 이봉우, 오현근, 최상태, 민김, 집행위원장 이원표, 부 위원장 유만호, 경기 위원장 케빈 문 씨 등으로 구성된다.

황선철 공동 대회장은 “작년에는 뜻있는 한인들의 성원으로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했다”며 “올해에도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BMC는 지난해 제1회 골프대회를 통해 4만여 달러의 기금을 모금했으며 이를 통해 1인당 2,000달러(20명 내외)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2-30대 초반 미 서부지역 거주자(가주, 워싱턴, 콜로라도, 네바다, 애리조나, 밴쿠버, 하와이)를 대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시 학업 성적, 학업 기간에 기록 정신에 기반한 활동 내역과 계획(편지 용지 1매 이상의 추천서 또는 자기 소개서 제출)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샛건으로 진행되는 이 골프대회의 참가비는 150달러(그린피와 저녁), 접수 마감은 오는 3월 18일 오후 5시까지이다. 출인원은 상금 3만 달러이며 올해 대회 특별 후원은 한솔 보험, 서울 메디컬 그룹, 세계한인 교민청, OC 한인상공회의소, 제너럴 파이낸셜 그룹 등이다.

행사 및 장학금 신청 문의는 안신기 총괄 준비위원장(909-677-0028)에게 문의하면 된다.

서부총연은 2023년 사업계획으로

1. 제2차 차세대 장학기금모금 골프대회 (4월3일 로스코요테스 골프클럽)
2. 제12차 세계대회 및 제49차 한국대회 (8월15일-18일 3박4일)
3. 제2회 cbmc 서부대회 및 리더십 스쿨 (10월 예정)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차례

지회탐방	1쪽 - 3쪽
제2회 골프대회 인터뷰	3쪽
골프대회에 수고하신 분들.	4쪽
무디성경은 TP 성경-임봉대 목사	5쪽
선교소식 - 최승암 목사	6쪽
땅끝 향기- 정 희	7쪽
광고 :	8쪽 - 9쪽
우리 지회 월간 스토리 제12차 CBMC 세계대회 총회 및 모임 안내	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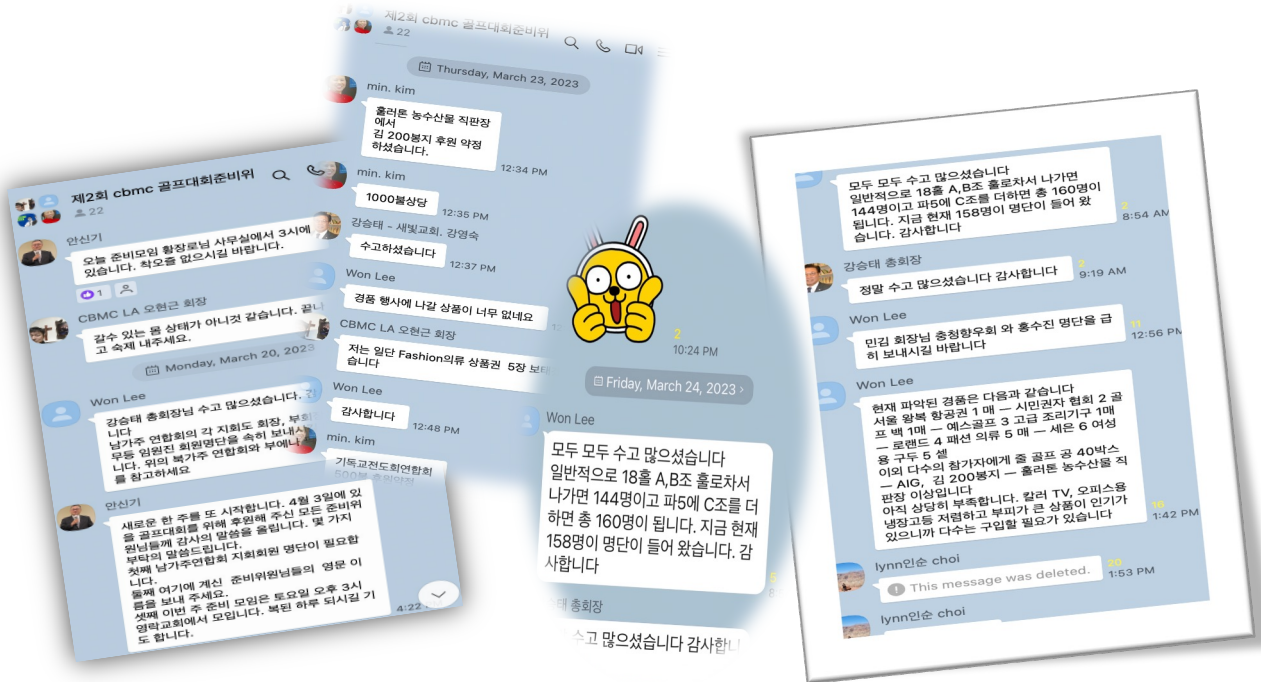
제2회 골프대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



내달 3일 열릴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회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관계자들.
왼쪽부터 안신기 총괄위원장, 황선철 공동대회장, 이지영 회계, 류민호 부집행위원장.

지난 두달 매일같이 수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디성경은 TP 성경

임봉대 목사

미국에서 목회할 때였다. 시애틀 지역의 24시간 한국어 방송인 「라디오한국」에서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동안 오프닝 프로그램을 3년 동안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이름이 “안녕하십니까 임봉대 목사입니다”였다. 라디오 한국은 기독교방송이 아니라 일반방송이었지만, 주로 새벽기도를 위해 교회를 다녀오는 사람,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새벽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목사님이 인도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진행을 맡았다. 물론 생방송이 아니라 낮시간에 방송국에 나가 미리 녹음해 두었다. 그 시간은 나도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인도해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위해 교회 다녀오는 차 안에서 내가 녹음한 방송을 들곤 하였다.

잠언 16장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1절과 3절)는 말씀은 얼마나 좋은가! 아침 일찍 이 말씀을 읽고 하루의 일과를 점검해 본다면, 오늘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기분이 좋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더욱 열심히 살게 될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Dwight Lyman Moody, 1837~1899년)의 성경책에는 여기 저기 TP라고 쓰여 있다고 한다. T는 Try(시도하다)의 첫 글자이고, P는 Prove(증명하다)의 첫 글자이다.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Try했더니, 말씀하신 그대로 Prove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무디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장군이요 후에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의 어머니도 무디의 전도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디의 이름을 따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1890~1969년)라고 지었다. 아이젠하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 더 강하다”고 하였다.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미국의 후버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고 했다.

민족의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의 암흑기에 이렇게 말했다. “지도자가 없는가? 지도자를 찾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라.” 이것은 민족의 자립, 자주정신을 일깨워 준 것이다. 믿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트라이밸리 지회 최승암 지도 목사



최승암 박주리 선교사 선교소식
(2023년 3월)



아프리카 미래를 깨우는 장학사역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54세, 같은 나이로 죽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위인이자 동상의 주인공들입니다. 아프리카 청년들이 자기 부족이나 국가 역사에서 존경할 만한 위인이 없다는 안타까운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GEN 선교부의 주요 사역 중 하나는 교회와 후원자의 정성을 아프리카 땅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을 격려하고 장학 지원하는 일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2023년 선발된 장학생들 모습입니다. 이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미래를 밝히고 이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Bossa



Esther



Justina



Tendo

활동과 뉴-우스

한국은 최근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었지요? 이곳은 별~써 해제 되었지만, 팬데믹 때 자리잡은 줌 사역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없이 어디서나 참석 가능한 편리함이 대면 모임을 밀어낸 것이지요. 성도들 사업장은 개업과 확장 소식, 예배는 여전히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를 보면 2021년의 미주 한인교회는 2019년과 비교해 19.3%가 줄었다고 합니다. 다시 중심을 잡고 걸어가야겠습니다.

작년 12월 태어난 손녀, 아린이가 백일을 넘겼습니다. 요즘처럼 의료환경이 좋아진 때도 백일의 기쁨이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군요. 언젠가 상봉의 날을 기대하며 향수(nostalgia)같은 그리움을 적립합니다. 영육의 봄꽃이 동역자님들 터전에 만개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GEN선교부장학 사역을 통해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격려받고 훈련받도록,
2. 우간다개혁 신학교 캠퍼스 이전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3. 순복음 선교교회, 버클리시온 장로교회, 주은혜 교회 말씀 사역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넘치도록,
4. 연로하신 어머니와 박주리 선교사 건강, 예찬이 공부와 직장, 손녀 아린이의 슬기롭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땅끝향기

선교는 삶이야!

정희

선교지에 부임하며 만난 선임 선교사님의 말씀이 늘 마음 한편에 새겨져 있다. 당시 20대였던 나에게 '선교가 삶'이란 말은 무척 멋있게 느껴졌지만, 그 의미를 깨닫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다만 선교지의 삶을 사는 동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잘살아내라는 격려였고, 사역보다는 엄마와 아내로 우선순위를 두느라 현지인들을 마음만큼 섬기지 못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나에게, 내가 아닌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위로의 말씀이었다.

선교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나에게 동역자들은 종종 이렇게 물었다. “사모님은 어떤 사역을 하세요? 선교지가 힘들진 않으세요?”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듯한 그들에게 지난 시간 동안의 대단한 사역의 결과물을 내보여야 할 것 같은 부담감도 있었지만, 나와 우리 가정을 사랑해주는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정직이었다. “전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자녀를 키우며, 외부 사역이 잦은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 왔어요. 아이들이 크고 나선 맡겨진 소소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듯 좋을 때하고 있어요.” 사랑 많은 나의 동역자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기쁘게 받아 주었고, 나의 삶을 지지하고 신뢰해 주었다.

그들의 질문과 용납은 나의 삶에서 '선교는 삶'이란 말의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내가 네팔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상황들 가운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위해 보냄 받은 선교사로서 살고 있는지' 의식하게 되었고, 고민하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었다.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의 사랑하는 세 자녀와 그들의 친구들이 선교사 자녀로서 의미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 가길 기도하며 응원해 왔고, 지친 동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왔다. 귀한 현지 친구들과 동역자들의 필요에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루어 가고자 노력해 왔고, 때론 절망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주신 동역자들의 사랑과 격려를 통해 넘어지나 아주 완벽히 엎드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왔다.

종교의 자유는 있으나 전도가 금지된 나라, 2018년 8월 더욱 강화된 네팔의 종교법은 삶을 통한 선교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처음 선교지로 나올 때 가졌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뜨다. 이 땅의 사람들과 법을 존중하게 되었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게 되었다. 균형 있고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 속에 원하시는 방향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하였다.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선교지의 상황 속에서 지켜가야 할 중요한 것들은 외부적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이신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일상 속에 얼마나 증거되는지에 집중하게 될 때, 나를 뒤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나름의 해답을 발견해 오고 있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용납하고, 주어진 상황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허락된 것임을 인정하며,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때라야 가능하다. (경험에 의하면 이것 또한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과 방향성이 세워진 삶, 그것이 선교적 삶이며 변화하는 네팔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임을 시간이 흐를수록 인식하며 인정해 가고 있다. 글과 말의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진 네팔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 속에 삶을 함께하는 친구로 머물며 나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주어진 자리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며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18년 전 선임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선교는 삶이야!'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극히 평범한 나의 일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통해 참된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차세대청년리더장학기금/ 미자립교회/ 세계한상대회기념

제 2회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회 **골프대회**

특별후원: 서울메디칼(SMG)/ OC 한인상공회의소/ 한솔보험



제공: 한미보험

Date: Apr,3 (Mon) 2023

Place: Los Coyotes Golf Course
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Head Count : 11AM

Shotgun : 1PM

접수마감: 2023년 3월24일 오후5시

참가비 : \$150 (골프fee +만찬)

문의처 : 안신기 (909.677.0028)

GOLD SPONSOR	\$10,000	5명Free 및 T Sign	Full Page 표지
SILVER SPONSOR	\$5,000	3명Free 및 T Sign	Full Page 광고
BRONZE	\$2,500	2명Free 및 T Sign	2/1 Page 광고
TEE SPONSOR	\$500	1명Free 및 T Sign	
	\$300	T Sign	

Payable to:Kcbmc USA, #83-4155731

행사 수익금은 전액 차세대 기독교청년 장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대 회장 : 강승태 / 공동대회장 : 황선철
 명예대회장:노상일(OC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차민영
 부대회장 : 이봉우, 계용식, 오윤호,
 총괄위원장: 안신기
 집행위원장: 이원표
 부 집행위원장: 류민호
 대회협력준비위원장: 송중보,오현근,최혜나,민김
 공동준비위원장: 손대운, 박성희, 최계영, 박래일,
 허정무, 프랭크 윤, 실비아 리
 경기위원장 : 케빈 문 (teaching professional)
 (메달리스트, 챔피언은 장학생1명 추천권과 본인명의 장학금 전달함)

주최: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회 (KCBMC)

후원: 미주한인보험인 협회, OC한인회,OC한미노인회,OC/SD민주평통,OC장로협의회,남가주ROTC,LA한인상공회의소,OC체육회,KACC,OC기독교전도회연합회,OC시민권자협회

미디어스폰서 : 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일요뉴스,라디오코리아,타운뉴스,CBS미주기독교방송,US메트로뉴스,Kwave(주),스포츠서울

협찬 : 마동환 변호사 그룹,UNI Good Friend보험,NGL Transportation,JAR Ins.inc. SCAN GSA항공산업(주),SEEUN Corp(세은), 연세대남가주동문회,용산고 남가주동문회,목요골프회,갈보리선교골프회

우리지회 월간 스토리

우리 지회 월간 스토리
연합회장님, 지회장님과 총무님!
지난 한 달간 지회모임을 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귀한 사역의 이야기
 - 회원 동정 (사업확장, 개업, 조경사)등
- 귀담아 듣겠습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 | CBMC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역, 하나의 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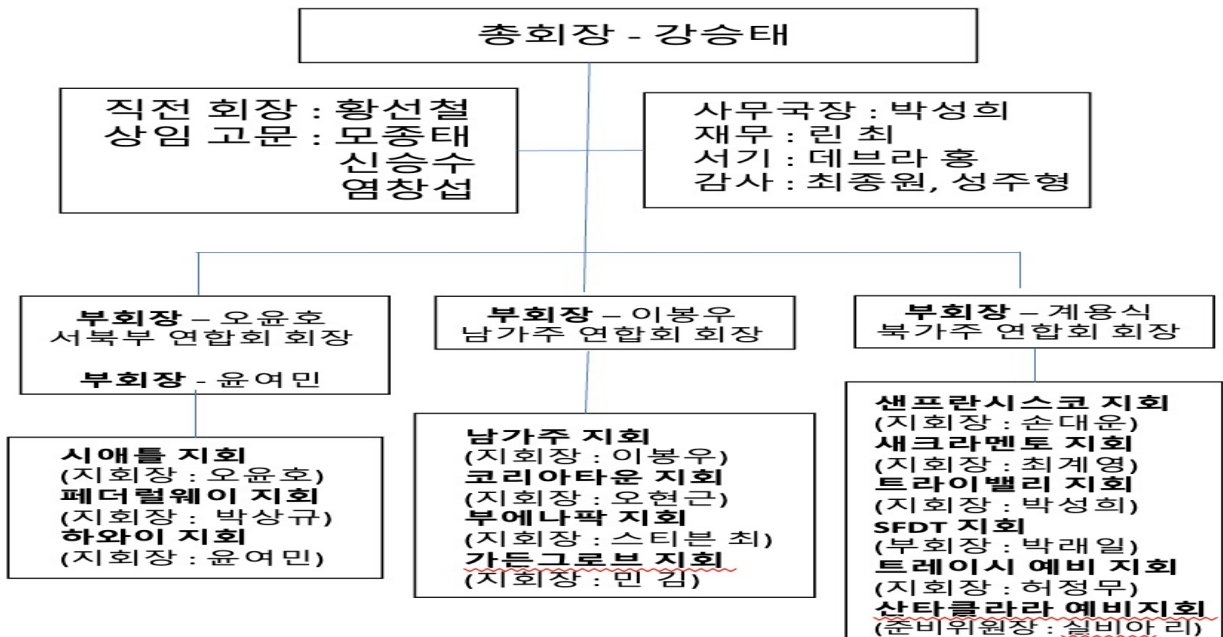
CBMC 세계대회 2023

2023년 08월 15일(화)-18(금), 영산수련원(오산리)

준비위원회 | 경기북부연합회(이성복 연합회장)



미주한인기독실업인서부총연합회



CBMC (기독교실업인회) 목적

실업인들과 전문 직업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기독교실업인들과 전문직업인들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는데 있다. (마태복음 28 : 18-20, 사도행전 1 : 8)

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 서부총연합회 (KCBMCUSA)

2023 주제 :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 (행 3:6)

목 표 : 성경적 경영과 섬김의 리더쉽 **표 어 :** 100개 지회 (재) 창립 역량강화 일터복음사명

CBMC <Connecting Business & Marketing to Christ>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실업인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CBMC는 1930년 미국에서 태동했으며, 기독교실업인 (사업가)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현재 전 세계 96개국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CBMC는 실업인과 전문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주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국제적 사명공동체입니다. 한국CBMC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국내 273개 지회, 해외 130개 지회가 있으며 7천5백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주지역 한인들의 기독교실업인회는 1975년 남가주에서 출발했습니다. 2019년 1월25일 창립된 미주한인 CBMC 서부총회는 2020년 1월 25일 서부총회 명칭을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 총회 (KCBMCUSA), 2022년 10월 18일 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 서부총연합회 (KCBMCUSA)로 변경했습니다. 총연은 서북부 연합회 (워싱턴, 오레곤, 알래스카주와 밴쿠버, 하와이), 북가주 연합회, 남가주 연합회 3개 연합회의 각 소속 지회로 구성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CBMC 연합회 지회 모임 안내 : COVID-19 사태로 비대면 ZOOM 화상 / 대면 회의 및 기도회

<p>남가주 CBMC 연합회 (연합회장 이봉우)</p> <p>남가주 지회 (회장 : 이봉우)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코리아타운 지회 (회장 : 오현근)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후 5:00</p> <p>부에나팍 지회 (회장 : 스티븐 최)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30</p>	<p>가든 그로브 예비 지회 (회장 : 민 김)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후 5:00</p> <p>북가주 CBMC 연합회 (연합회장 계용식)</p> <p>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 손대운) 모임 : 매주 정례 (금) / 줌 *시간 : 오전 7:00</p> <p>새크라멘토 지회 (회장 : 최계영)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전 6:30</p>	<p>트라이밸리 지회 (회장 : 박성희) -모임 : 매주 정례(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SF 다운타운지회 (부회장 : 박래일)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p>트레이시 예비 지회 (회장 : 허정무) 모임 : 주별 비정례</p> <p>산타클라라 예비지회 (준비위원장 : 실비아 리)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p>서북부 연합회 (연합회장 오윤호)</p> <p>시애틀 지회 (회장 : 오윤호)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페더럴웨이 지회 (회장 : 박상규) 모임 : 주별 비정례</p> <p>하와이 지회 (회장 : 윤여민)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	--	---	---